

“후보자 검증 이뤄지지 않은채 경선”

민주 유희태 예비후보, 경선 결과 이의제기하며 중앙당에 재심 신청서 제출 “상대 후보 완주 폐기물 논란 답변 이뤄지지 않는 등 의혹 해명 없이 진행돼”

4·15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유희태 예비후보가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중앙당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



유희태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 경선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데다 중복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등 여론조사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중앙당 공

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 후보는 유권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이자 후보 도덕성, 실체를 살피기 위해 이뤄져야 할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경선이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호영 예비후보의 친형 및 전 비서 등 후보자 매수에 대한 기소의 건에 대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어 완주군 폐기물 논란에 대해서도 관련답변이 이뤄지지 않는 등 각종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채 경선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친형 상대후보 매수건을 비롯해 폐기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안호영 예비후보를 민주당 경선 후보로 추천하는 등 당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제대로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여론 조사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중복투표가 이뤄지지 않게하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관리당원으로서 참여한데 이어 일부 관리당원의 경우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또 다시 투표를 하는 등 중복투표가 가능해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현재까지 어떠한 해

명 없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사전 충분한 검증 없이 경선후보로 추천한 것부터가 의심스런 대목”이라며 “중앙당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제대로 심사해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당이 직접 나서 후보자를 보호해야 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예비후보는 “공정한 공천 제도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질 있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번 경선과정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번 재심청구는 경선불복이 아니며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명시된 공정하고 불평부당한 후보선정 절차를 밟는 과정인 만큼 공정한 경선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선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청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전주시의회, 임대료 관련법 조기 개정 촉구

전주시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과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원을 위한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정부에 발표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표한 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임대인 형국으로 확대돼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의 참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착한임대료 운동에 건물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상가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건물주와 임대자 간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

다”며 “서로가 상생하는 마음으로 건물주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표한 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임대인 형국으로 확대돼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의 참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착한임대료 운동에 건물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상가임대료 인하 동참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건물주와 임대자 간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착한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

문 대통령 “초당적 협력”... 여야 대표 “추경 돕겠다” 화답

“정부-국회, 국가적 역량 모아 총력 대응” 공동발표문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국회 사랑채를 찾아 여야 4당 대표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부탁하자 4당 대표들은 “돕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유성열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적 영향을 미쳤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깊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지만 “재정적·법적 지원은 국회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미래통합당은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예비비든 추경이든 모두 선제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유성열 민생당 대표는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은 명백히 실패했다”면서도 “정부는 지체 말고 코로나 추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끼어들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라며 “베르스 때도 10조를 편성해서 2조밖에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주지 예산이 왜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동 종료 후에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국회와 정부가 총력대응 하겠다는 내용의 청와대·여야 4당 대표 간 공동발표문이 나왔다. 발표문에는 “국회 코로나19 특위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추경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추경은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의료인력, 치료 병상, 시설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대표를 만나기에 앞서 문화상 국회의장을 찾아 화답을 나눴다. 시정 연설을 제외한 첫 국회 방문에 예우를 갖추고자 문 의장과 화답이 먼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앞서 다섯 차례의 여야 대표 회동은 모두 청와대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10일 열린 직전의 여야 대표 회동은 국정을 논의하기 위한 성격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여야 대표 회동은 지난해 7월18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마지막이라 할 수 있다. 당시엔 일본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였다. 11월 회동은 문 대통령이 모친상 조문을 다녀간 여야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청와대로 초청, 비공개 만찬 회동 형태로 진행됐다. /뉴시스

이낙연 “매주 코로나19 대책위 열 것”

“다중 대면 선거운동은 자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대응을 더욱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중대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코로나19가 완화될 때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를 열고, 매주 수요일에 당·정·청을 열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당 지역위는 낮은 자세로 각 지역의 방역을 돕고 골목상가를 도울 것”이라며 “다중 대면 선거운동은 계속 자제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진성 기자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조배숙 “코로나19, 시민들과 함께 극복할 것”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조배숙 예비후보(민생당·익산시)가 지역화폐인 ‘다노로움’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코로나 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익산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익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비 진작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